

## 遇不遇 개념의 淵源과 神話的 形象

오만중\* · 장수연\*\*

### 【목 차】

1. 緒言
2. 遇字의 어원
3. 遇字의 用例
4. 遇不遇의 神話的 形象
5. 結語

### 【초록】

본 논문은 먼저 ‘우연한 만남’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遇’자가 그 초기 형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글자의 어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후 이런 의미의 ‘遇’자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선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遇’자가 사용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먼저 『周易』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遇’자는 동사로서 각종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春秋』에 보이는 용례에서는, 중국의 禮儀문화 배경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四季節의 정기모임 중에 겨울의 모임을 지칭하는 명사로 ‘遇’자가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제후 간의 비정기적인 혹은 사전에 기약하지 않은 모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초창기의 ‘遇’자가 갖고 있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의 의미가, 예의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자와 제후, 혹은 제후와 제후 간의 비정기적 혹은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외연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을 나타내는 보편적 개념을 함의하는 단어로 ‘遇’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내포된 우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遇’자가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키워드】 遇不遇, 禮儀文化, 周易, 春秋, 諸侯

\* 전남대학교 중문과 교수 (oumj6011@jnu.ac.kr)

\*\* 전남대학교 중문과 박사생 (641-0035@hanmail.net)

## 1. 緒言

인간의 삶은 만나고(遇) 만나지 못함(不遇)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갖가지 상황들을 만나거나 만나지 못해 생명체의 존속에 영향을 받는다. 움직이는 생명체는 생명의 보존을 위해 끊임없는 이동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만나지 않으려고 필사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동물은 필요에 따라 만나고 만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들은 철 따라 서식지를 옮겨가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바꿈으로써 생명을 이어간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생명체는 객관적 상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내적 변화를 통해 외부의 조건에 적응하며 생명을 이어간다. 따라서 식물은 외부의 조건 변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식물은 맑은 날의 따스한 태양빛과 흐린 날의 폭풍우를 견뎌야만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간이란 동물 역시 본능적으로 생명의 보존을 위해 주변의 조건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라 했던가? 이 점이 여타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 욕구 충족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 이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만이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기도 하고, 세속의 명예와 부를 거부하기도 하며, 더러는 과도한 명예와 부 그리고 육체적 욕망을 탐닉하다 폐가망신하기도 한다. 동물은 배가 차면 결코 더 먹지 않고, 식물은 더 화려한 꽃과 알찬 열매를 위해 결코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 이렇게 추론해가면 만남의 문제가 생명의 존속과 연관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불교의 연기설<sup>1)</sup>과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인은 만남의 문제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사유했다면, 인도인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존재의 근원적 문제로 천착해 들어가,遇가 인연에 의해 일어남을 보고 12연기설과 같은 깊고精緻한 사유를 펼쳤다.

생명체의 靈長인 인간의 만나고 만나지 못함의 문제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遇不遇는 개인의 삶과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지식인들의 遇不遇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했던 고대시기에는 관직에 나아가 자신이 닦아왔던 학식을 근거로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당시 지식인의 유일한 出路였다. 그러나 학식을 이루었다고 반드시 세상에 곧바로 쓰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조직의 틀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이상을 순탄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식인들의 고뇌가 시작된 지점이다. 遇와 不遇, 出仕와 隱居, 이것은 그들에게 운명인가 선택인가?

고대 중국 지식인들은 자신의 出仕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사유하기 시작하였다. 관리 등용 제도가 시행되기 전, 士人들이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먼저 ‘현명함과 재능(賢能

1) 불교는 인간이 생을 만나서 늙어 죽는 생사윤회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며, 각 단계 사이에는 엄격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 12단계는 無明緣行, 行緣識, 識緣名色, 名色緣六處, 六處緣觸, 觸緣受, 受緣愛, 愛緣取, 取緣有, 有緣生, 生緣老死이다. 즉 無明은 行의 원인이며, 行은 無明的 결과다. 이와 같이 추론해 가면 생은 老死의 원인이며, 老死는 생의 결과다.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pp.245-246 참조.

)<sup>2)</sup>을 갖추어야 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수용할 수 있는 君主가 필요했다. 이때 士人들은 개인적으로 군주를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거나, 군주가 현능한 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방문하여 出仕를 간청하는 방법으로 인재가 등용되었다. 따라서 인재 등용 제도가 있기 전, 士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능력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야 하는 일정 정도의 우연적 요소가 따라주어야 한다. 이것을 가리켜 ‘때를 만났다(遇時)’ 하고, 반대의 경우는 ‘때를 만나지 못했다(不遇時)’고 한다. 현능한 士人이 군주가 尊賢使能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때를 만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는 懷才不遇(懷才不遇)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遇’자의 자형을 분석함으로써 遇자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는가의 어원을 탐구하고, 아울러 선진 문헌에 보이는 遇자의 용례를 통해 그 의미의 변환과정을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 고대 신화 인물 중, 遇不遇의 전형적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후대 인물들과 어떻게 類比推理되어지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 2. 遇字의 어원

인간이 원시시기에 느끼고 인식하며 사유한 것에 대해 어떻게 나타내려고 했는지 즉 문자로 표현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은 정확하게 복귀할 수 없다. 그저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사유의 대상을 문자화하였으리라 추측할 따름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는 ‘만나다’는 개념을 어떻게 문자로 형상화하였는지의 과정은 밝힐 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그 어원의 형성과정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볼 수 있다. 遇字의 어원을 알기 위해 먼저 초기의 사전인 『爾雅』와 『說文解字』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爾雅』에는 “遘와 逢은 만나다는 遇의 의미고, 遘와 逢 그리고 遇는 거스르고 저촉되다는 遘의 의미이며, 遘와 逢과 遇와 遘은 보다는 見의 의미다.(遘·逢, 遇也. 遘·逢·遇, 遘也. 遘·逢·遇·遘, 見也.)”라 하고, 郭璞은 注에서 “가다가 서로 만나면 보는 것이다(行而相值卽見)”<sup>3)</sup>고 풀이한다. 『說文解字』에는 “遇, 逢也, 从辵, 禺聲”이라 한다. 그리고 遭、遘、逢字들 모두 遇字로 풀이하고 있다. 즉, “遭, 遇也, 从辵, 曹聲”, “遘, 遇也, 从辵, 莠聲”, “逢,

2) ‘賢能’은 도덕성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賢才’나 ‘賢良’이라 칭하기도 한다. 賢能한 사람을 추천하거나 중용해야한다는 주장은 諸子들에게서 자주 보인다. 『論語·子路』편에 정치를 하는데, “어질고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하라(舉賢才)”고 하고, 『墨子·親士』편에는 “어진 이를 보고도 등용하는데 다급하지 않으면, 소홀한 군주다(見賢而不急, 則緩君矣)”라고 하며, 『孟子·公孫丑(上)』에는 “어진 이를 존중하고 능력 있는 자를 부리면, 준걸들이 관직에 있게 된다(尊賢使能, 俊傑在位)”라고 하고, 『荀子·王制』편에는 “현능한 이는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하고, 무능한 이를 파면하는 일은 잠시도 기다리지 말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賢能不待次而舉, 罷不能不待須而廢)”라고 하며, 『呂氏春秋·孟秋紀』에는 “현량한 이를 선발하여 높여 드러나게 한다(選其賢良而尊顯之)”라고 한다.

3) 『爾雅』, 『十三經注疏』 8, 臺北, 藍燈文化事業公司, pp.23 참조.

遇也, 从辵, 禺聲”라고 互訓한다. 다시 말해 遇는 遭、邁、逢의 의미와 상통한다. 段玉裁는 ‘逢’자의 『注』에서 聲符의 “逢은 梧의 의미다. 梧는 거스르거나 맞이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字는 형성이며 회의를 포함한 글자다.(逢, 梧也. 梧, 逆也, 此形聲包會意.)”라고,<sup>4)</sup> 遇、遭、邁、逢의 글자 중 이 逢자만 聲符에 만나다는 의미부호가 있음을 드러낸다. 갑골문을 조사해 보면, 遇와 遭자는 보이지 않고, 邁와 逢자만 보인다. 逢자는 갑골문에 從彳逢聲의 𢇛(彳逢)자가 보이는데, 羅振玉과 李孝定은 ‘逢’자로 釐定하고 地名으로 쓰였다고 한다.<sup>5)</sup> 즉 갑골문에서는 아직 逢자가 만나다는 의미로 쓰인 실례는 보이지 않는다. 邁자는 갑골문에 초기의 형태로 𢇛(邁)자가 보이고, 이외에도 從止인 𢇛, 從彳인 𢇛, 從彳止인 𢇛 등 𢇛자의 다양한 형태의 孳乳字도 보이는데, 학자들은 이들을 모두 邁자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𢇛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을 보이는데, 李孝定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형상”<sup>6)</sup>으로 보고, 裘錫圭는 『설문해자』에 보이는 𢇛의 해석과 郭沫若의 ‘簞’자의 初形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목재가)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sup>7)</sup>으로 본다. 갑골문 𢇛의 형상으로 보아, 𢇛자는 李孝定の 추측처럼 물고기가 서로 만나는 형상이든, 『설문해자』의 설명에 근거한 裘錫圭의 주장처럼 목재가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든, 두 가지 사물이 우연히 서로 만나는 형상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裘錫圭의 분석에 의하면, 갑골문에 보인 𢇛자는 제사의 명칭, 만나다는 의미, 그리고 人名 등의 용례로 쓰였다.<sup>8)</sup> 따라서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초기의 글자 형태는 갑골문에 쓰인 𢇛와 孳乳字인 從止의 𢇛, 從彳의 𢇛, 從彳止의 𢇛 등이다.

금문에는 邁、遇、逢자가 보이는데, 邁자는 갑골문과 같이 從彳의 𢇛 혹은 從彳止의 𢇛 형태가 보이며, 婚媾의 의미로引申되어 쓰인 용례만 보인다. 遇자는 從彳止寓聲의 𢇛자와 從辵이 없는 𢇛가 보이고, 逢자는 從彳艸의 𢇛자가 보인다. 금문에 보이는 遇자와 逢자는 만나다는 의미로 쓰였다.<sup>9)</sup> 이상과 같이 갑골문과 금문에 보이는 ‘만나다’는 의미의 초기 글자들의 용례를 보았을 때, 가장 초기의 문자는 갑골문의 𢇛자와 그 孳乳字들이고, 금문에서는 遇자와

4) [清]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09, p.71쪽 참조.

5)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第3冊, 北京, 中華書局, 1996.05, pp.2301-2302쪽 참조. ‘逢’자도 보이는데, 地名으로 쓰였다. 같은 책, pp.875-876 참조.

6)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第4冊, p.3141)에 李孝定은 “의심컨대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형상으로 邁、遇의 本字일 것이다. 從辵인 邁는 繁文이다. 오직 이 설은 증거를 댈 수 없으나, 과감하게 주장하여 후일의 고증을 기다린다.(疑象二魚相遇之形, 爲邁遇之本字. 從辵作邁字, 其繁文也. 惟此說殊無左證, 姑妄說之以俟考.)”고 주장한다.

7)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第4冊, p.3145)에 裘錫圭는 “갑골문의 𢇛자는 혹은 從止, 혹은 從彳, 혹은 從辵이나 통용되고 구별이 없다. 『說文』에 ‘𢇛는 교차되어 쌓인 목재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형상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라고 말하면 맞으나, ‘교차되어 쌓인 목재’라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 小篆에 邁、構、簞、觀、媾 등의 글자들은 모두 𢇛자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초기의 형태는 모두 𢇛자였을 것이다.……‘𢇛’자의 마주 대하여 교차한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을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 광말약은 簞의 초기 형태라고 주장하는데 참고할 만하다.(甲骨文𢇛字或從止, 或從彳, 或從辵, 通用無別. 說文: 𢇛, 交積材也, 象對交之形. 謂爲‘象對交之形’是對的, 謂爲‘交積材’則不確. 小篆邁、構、簞、觀、媾諸字均由𢇛字孳乳分化而來, 其初形均當作𢇛.……至於‘𢇛’字對交之形究竟何所取象, 郭沫若以爲即簞之初形, 可備一說.)”라고 주장한다.

8)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第4冊, p.3145 참조.

9) 容庚 編著,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07, pp.97-98 참조.

逢자의 용례가 보인다. 『爾雅』에서 “遘와 逢과 遇와 遘를 보다는 의미의 見”으로 풀고, 『설문해자』에서 遇자와 遭、遘、逢자들을 互訓하고 있는데, 遘자와 逢자는 만나다는 의미의 聲符가 포함되어 있어 互訓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나, 遇자와 遭자는 어떻게 만나다는 의미로 쓰였는지 추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문에 보이는 從辵止寓聲의 𨔵<sup>10</sup>자로부터, ‘옛날 산길이나 들길을 가다가 해질녘에 인가를 만난 경우를 遇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遘자의 초기 글자형태가 보여주듯 어떤 두 사물이 우연히 서로 만나는 형상의 의미나, 逢자의 聲符에 내재된 거스르거나 맞이하다는 의미와 遇자가 互訓이 되는 글자임을 『爾雅』와 『설문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遇자의 금문 자형 𨔵<sup>11</sup>에서도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인가를 만나다는 의미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므로, 이 遇자가 본래부터 ‘우연히 만나다’의 의미로 쓰인 글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 3. 遇字의 用例

이어서 전래 문헌에 쓰인 遇자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遇자의 어원으로부터 살펴본 ‘우연히 만나다’의 의미는 전래 문헌의 쓰임에서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먼저 『周易』에 쓰인 예를 보면, 「序卦」에 “夬괘의 夬자는 사악한 것을 끊어낸다는 의미다. 사악한 것을 끊어내면 반드시 기쁜 일을 만나게 되니 그러므로 「姤」괘가 이어지며, 姤자는 만나다라는 의미다.(夬者決也. 決必有所遇, 故受之以「姤」, 姤者遇也.)”<sup>10</sup>라고 64괘의 순서 중 夬괘 다음에 姤괘가 오는 이유를 마치 사악함을 끊어내면 기쁜 일을 만나게 되는 우연의 순리를 통해 정당화 한다. 『周易』은 인간사를 때와 위치의 문제로 보고, 각각의 때와 위치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우연히 만난 사례가 빈번히 보인다. 예를 들면 자연현상을 만나는 경우로, 睽卦에 “가다가 음양의 조화로운 비를 만나니 길하다(往遇雨則吉)”<sup>11</sup>고 하거나, 夬卦에 “군자가 강인하고 과단성 있게 홀로 행한다면, 비록 음양의 비를 흠뻑 젖도록 맞고 혐의를 입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더라도, 허물이나 해는 없다.(君子夬夬獨行, 遇雨若濡, 有愠, 无咎.)”<sup>12</sup>라고 하며; 사람을 만나는 경우로, 同人卦에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뜻이 같은 자들을 서로 만나 회합하였기 때문이다(大師克相遇)”<sup>13</sup>고 하고, 睽卦에 “골목길에서 예기치 않게 주인을 만나니 허물이나 해가 없다(遇主于巷, 无咎)”<sup>14</sup>고 하거나, “등지고 어긋나 고립되나, 강한 장부를 만나 교유하며 믿으니, 비록 위험한 일이 있다하더라도 허물이 없다(睽孤, 遇元夫, 交孚, 厲无咎)”고 하며; 위험한 것을 만나는 경우로, 噬嗑卦에 “질긴 고기를 씹으면, 고기 중에 독을 만나듯 순조롭지 않아 조금 애석함이 있으나, 해는 없다(噬腊肉, 遇毒, 小吝, 无咎)”<sup>15</sup>고 하는 등 다양한 만남

10)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 p.647 참조.

11)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p.315 참조.

12)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p.357 참조.

13)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p.128 참조.

14) 黃壽祺, 張善文, 『周易譯註』, p.312 참조.

의 경우를 들어 인간사의 길흉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특히 『左傳』에는 84회의 遇자가 보이는데, 그 중 14회가 점을 쳐 어떤 卦를 우연히 만났다는 “遇+卦名”의 경우에 쓰였다. 이처럼 ‘遇’자는 초기의 문헌 기록에 인간 삶속에서 우연한 만남의 다양한 경우를 표현할 때 동사로 쓰였다.<sup>16)</sup>

‘遇’자는 이렇게 동사로 사용됨과 동시에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즉 천자와 제후 간의 만남이나, 제후와 제후 간의 만남의 의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쓰였다. 먼저 『周禮·大宗伯』에 “[대종백은] 빈례로 방국과 가까이 하는 예를 주관한다. [제후가 왕을]……겨울에 만나는 것을 遇라 한다……”<sup>17)</sup>는 기록이 보인다. 鄭玄은 주석에서 遇禮에 대해 “遇는 우연함을 의미하니, 기약한 모임은 아니나 모두 도달하고자 함을 말한다.”<sup>18)</sup>고 설명한다. 즉 ‘遇’禮는 제후가 겨울에 왕을 만나보는 의식으로, 미리 정한 기약은 없으나, 朝禮、宗禮、覲禮를 하지 않았다면, 한해가 다하기 전에 왕을 뵈러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어, 겨울의 정기모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禮記·曲禮下』에도 遇禮가 보이는데, 즉 “제후가 정기모임의 날이(혹은 기약한 날) 이르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게 된 것을 遇”<sup>19)</sup>라고 말한다. 「

15) 黃壽祺·張善文, 『周易譯註』, pp.183 참조.

16) 유가 경전에 쓰인 ‘遇’자는 『周易』에 30회, 『尙書』에 2회, 『左傳』에 84회, 『穀梁傳』에 24회, 『公羊傳』에 16회, 『周禮』에 5회, 『禮記』에 12회, 『毛詩』에 11회, 『論語』에 2회, 『孟子』에 8회 등이다.

17) “[대종백은] 빈례로 방국과 가까이 하는 예를 주관한다. [제후가 왕을] 봄에 만나는 것을 朝라 하고, 여름에 만나는 것을 宗이라 하며, 가을에 만나는 것을 覲이라 하고, 겨울에 만나는 것을 遇라 하며, [제후가 불복하는 일이 있을 경우] 때때로 정벌을 하여 만나보는 것을 會라 하고, [왕이 순수를 하지 않은 경우 제후가 천자를] 한꺼번에 만나는 것을 同이라 하며, [왕이 일이 있어 제후를 불러] 때때로 보는 것을 問이라 하고, 여러 제후들을 돌아가면서 불러 보는 것을 視라 한다.([大宗伯]以賓禮親邦國. 春見曰朝, 夏見曰宗, 秋見曰覲, 冬見曰遇, 時見曰會, 殷見曰同, 時聘曰問, 殷覲曰視.)” 『周禮』, 『十三經注疏』 3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p.275-276 참조.

18) “이 육례는 제후가 왕을 만나보는 것을 예문으로 삼는다. 육복의 땅 안의 제후는 계절 따라 나누어 오니, 혹은 봄에 朝禮하고, 혹은 여름에 宗禮하며, 혹은 가을에 覲禮하고, 혹은 겨울에 遇禮하니, 이름이 틀리고 예가 다르니 바꾸어 번갈아가며 두루 하게 된다. 朝는 아침의 의미와 같으니, 일찍 오기를 바라는 의미다. 宗은 존경의 의미니. 왕을 존경하고자 하는 의미다. 覲은 근면함을 말하니, 왕의 일을 근면하게 힘쓰고자 함을 말한다. 遇는 우연함을 의미하니, 정기 모임이 아니나(혹은 기약하지 않았으나) 모두 도달하고자 함을 말한다. 때때로 본다는 것은 일정한 기약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제후 가운데 따르고 복종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왕이 장차 정벌하는 일이 있게 되니, 이미 왕에게 朝覲禮를 하였으므로, 나라 밖에 단을 만들어 제후를 규합하여 일을 명한다. 『春秋傳』에 ‘일이 있으면 회동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盟誓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다. 殷은 무리와 같은 의미니, 12년 동안 왕이 순수를 행하지 않으면, 육복의 제후가 모두 조회한다. 조례가 이미 끝났으나, 왕은 또 단을 만들어 제후를 규합하여 정사를 명하니, 그 명한 정사의 내용은 왕이 순수하거나, 사방의 제후를 한꺼번에 보거나, 사시에 따라 나누어 오거나 하는 일로, 한해가 끝나면 두루 마치게 된다.(此六禮者, 以諸侯見王爲文. 六服之內, 以時分來, 或朝春, 或宗夏, 或覲秋, 或遇冬, 名殊禮異, 更遞而徧. 朝猶朝也, 欲其來之早. 宗, 尊也, 欲其尊王. 覲之言勤也, 欲其勤王之事. 遇, 偶也, 欲其若不期而俱至. 時見者, 言無常期. 諸侯有不順服者, 王將有征討之事, 則既朝覲王, 爲壇於國外, 合諸侯而命事焉. 春秋傳曰, 有事而會, 不協而盟, 是也. 殷猶衆也, 十二歲王如不巡守, 則六服盡朝. 朝禮既畢, 王亦爲壇, 合諸侯而命政焉, 所命之政, 如王巡守, 殷見四方, 四時分來, 終歲則徧.)” 『周禮』, 『十三經注疏』 3冊, pp.275-276 참조.

19) “제후가 정기모임의 날이(혹은 기약한 날이) 이르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게 된 것을 遇라 하고, 국경 사이의 땅에서 만나는 것을 會라 한다. 제후가 대부로 하여금 다른 제후에게 묻는 것을 聘이라 하고, 약속하여 지키는 것을 誓라 하며, 희생물을 잡아 그것에 임하 삼혈하는 것을 盟이라 한다.(諸侯未及期相見曰遇, 相見於卻地曰會. 諸侯使大夫問於諸侯曰聘, 約信曰誓, 涇牲曰盟.)” 『禮記』, 『十三經注疏』 5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p.92 참조.

曲禮」편의 遇禮는 제후 간 상견의 예<sup>20)</sup>로, 정현은 주석에서 “이제 만약 이전 정기모임의 날 이(혹은 기약한 날이) 이르지도 않았고 또 기약한 땅도 아닌데 갑자기 서로 만나면, 遇禮를 사용하여 서로 대접하므로 遇라 한다.”<sup>21)</sup>라고 비교적 상세히 설명한다. 제후 간에 정기모임이 아니나 만나게 된 경우이므로, 비교적 간단한 遇禮로 서로를 접대하면 되었다. 이처럼 ‘遇’자는 통치자들 사이에서 만남의 의식을 표현하는 일종의 명사로도 쓰였다.

선진시기 제후 간에 정기모임 외에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를 ‘遇’라 명명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모임을 가리킬 때 ‘遇’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동사 ‘遇’를 사용하여 제후 간의 만남을 표현한 사례가 『春秋』經文에 7곳이 보이는데, 다음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즉 첫째는 某及某遇于地名; 둘째는 某某遇于地名이다. 먼저 첫째의 경우를 보자. 某及某遇于地名 형식의 사례는 4곳에 보이는데, 「隱公4年」에 “여름에 은공이 송공에게 가 청 지역에서 만났다.(夏, 公及宋公遇于淸.)”라고 하는데, 『穀梁傳』에서는 “及은 노나라가 이 회동에 뜻이 있음을 나타내고,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及者, 內爲志焉爾. 遇者, 志相得也.)”<sup>22)</sup>라고 하고, 『公羊傳』에서는 “遇는 무슨 의미인가? 정기모임이 아님을(혹은 기약하지 않음을) 말한다. 한 군주가 국경을 나섰는데, 그 나라 군주가 만남을 요청한 것이다.(遇者何? 不期也. 一君出, 一君要之也.)”<sup>23)</sup>라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遇’는 천자와 제후 간에 정기적으로 겨울에 만나는 회동을 지칭하는 명사의 의미가 아니고, 제후 간에 부정기적인 만남으로,<sup>24)</sup> 따라서 여름에 만나는 것이어서 정기모임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遇’자를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莊公23年」<sup>25)</sup>과 「莊公30年」<sup>26)</sup>에도 제후 간의 만남을 언급하는 내용에 동일한 의미로 遇字를 사용한다. 그러나 「僖公14年」에는 제후의 딸과 제후와의 만남을 언급한 내용이 보인다. 즉 “여름 6월에 僖公의 딸 季姬가 縶<sup>27)</sup>나라 군주에게 가 防 지

20) “이 절의 내용은 제후가 서로 만나는 예를 말한다.(此一節言諸侯相見之禮也.)” 孫希旦, 『禮記集解』, 北京, 中華書局, 1989.02, pp.140-141 참조.

21) “今若未至前所期之日, 及非所期之地, 而忽相見, 則並用遇禮相接, 故曰遇也.” 『禮記』, 『十三經注疏』 5冊, p.92 참조.

22)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20 참조.

23)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30 참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經文의 隱公이 宋公을 만나는데, 『穀梁傳』은 隱公이 만나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公羊傳』은 宋公이 만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左傳』에는 설명이 없어, 어느 것이 史實에 부합한 지 확인할 수 없다.

24) 何休는 『注』에서 遇禮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옛날에 遇禮가 있는데, 천자에게 조회하고, 그 조회를 마치고 어느 아침 갑자기 길에서 만나면, 가까운 자는 주인이 되고 먼 자는 손님이 되어 선군을 칭하면서 서로 접대한다. 그럼으로써 禮讓을 숭상하고 태만하고 경솔함을 끊으려 하였다. 춘추시기에 천자 나라의 출입에 법도가 없어, 재화와 어지러움 간교함과 도적질이 남을 헤아림이 없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고, 일이 없는데도 갑자기 만남을 요구하면 소인은 의심의 마음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를 중시하여 기록함으로써 화의 근원을 예방하려 한 것이다.(古者有遇禮, 爲朝天子, 若朝罷, 朝卒相遇于塗, 近者爲主, 遠者爲賓, 稱先君以相接, 所以崇禮讓, 絕慢易也. 當春秋時, 出入無度, 禍亂姦宄, 多在不虞, 無故卒然相要, 小人將以生心, 故重而書之, 所以防禍原也.)”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30 참조.

25) “莊公이 齊侯에게 가 곡 지역에서 만났다.(公及齊侯遇于穀.)” 『穀梁傳』에 동일한 설명이 보인다. 즉 “及者, 內爲志焉爾. 遇者, 志相得也.”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59 참조.

26) “겨울에 莊公이 齊侯에게 가 魯의 濟水에서 만났다.(冬, 公及齊侯遇于魯濟.)” 『穀梁傳』에 동일한 설명이 보인다. 즉 “及者, 內爲志焉爾. 遇者, 志相得也.”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65 참조.

27) ‘縶’자는 『公羊傳』에 ‘鄆’자로 되어 있으며, 이 字가 마땅히 나라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옳다.

역에서 만났고, 繒나라 군주로 하여금 조회하러 오게 하였다.(夏六月, 季姬及繒子遇于防, 使繒子來朝)” 이에 『穀梁傳』은 설명하길, “遇는 함께 도모했다는 뜻이다. 來朝는 와서 자기를 부인으로 삼기를 청하라는 뜻이다. 朝라 하고 使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使臣으로서 바르지 않음을 말함으로써 繒나라 군주를 허물하려는 것이다.(遇者, 同謀也, 來朝者, 來請已也. 朝不言使, 言使非正也, 以病繒子也.)”<sup>28)</sup>라고 한다. 『穀梁傳』은 이전 세 곳의 事例의 ‘뜻을 서로 얻는다(志相得)’는 釋例와 달리, 이 事例에서는 ‘遇’자를 사용한 이유를 ‘함께 도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어찌됐든 『春秋』 經文에서 ‘遇’자를 사용한 의도에 대해 『穀梁傳』은 모두 두 사람 간에 서로 정기모임은(혹은 기약한 모임은) 아니지만, 만나게 된 것은 뜻이 서로 맞았을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의 경우는 某某遇于地名의 형식으로, 사용된 사례는 3곳이 보인다. 『隱公8年』에 “봄에 송공과 위나라 제후가 수 지역에서 만났다.(春, 宋公衛侯遇于垂).”라고 하는데,<sup>29)</sup> 『穀梁傳』은 “정기모임은 아니지만(혹은 기약하지 않았지만) 모인 것을 遇라 하고,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不期而會曰遇, 遇者志相得也.)”<sup>30)</sup>고 설명한다. 정기모임은 아니지만 모임이 이루어졌고,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서로 간의 뜻에 부합했음을 의미하므로 ‘遇’자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다. 서로 간에 뜻이 부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아마도 何休가 『公羊傳』의 『注』에서 “宋公을 위에 놓은 것은 당시에 衛侯가 宋公을 만나자고 요청하였으므로,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송공으로 하여금 모임의 주인이 되게 하여, 마땅히 경계하고 신중할 것을 밝힌 것이다.(宋公序上者, 時衛侯要宋公, 使不虞者爲主, 明當戒慎之.)”<sup>31)</sup>라고 하듯이, 衛侯가 宋公을 만나고자 하였고, 宋公도 응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뜻이 서로 부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莊公32年』에 보이는 동일한 형식의 經文 “宋公과 齊侯가 梁丘 지역에서 만났다.(宋公齊侯遇于梁丘)”에 대한 『穀梁傳』의 설명은 何休 『注』의 내용과 상응함을 잘 보여준다. 즉 “遇는 뜻을 서로 얻은 것을 말한다. 梁丘 지역은 曹와 邾 사이에 있으며, 제나라와 팔백 리 떨어져 있다. [제환공이] 제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었으나, 만나고자 한 제후들을 사양하고 만나지 않고자 한 사람(宋公)을 만났다고 한 것은 제환공을 높인 것이다.(遇者, 志相得也. 梁丘在曹邾之間, 去齊八百里, 非不能從諸侯而往也, 辭所遇, 遇所不遇, 大齊桓也.)”<sup>32)</sup> 何休의 『注』에 따르면 뒤에 기록된 齊桓公이 앞에 기록된 宋公을 만나고자 요청한 것이고,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宋公은 당시 霸王이었던 桓公이 도중의 다른 제후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팔백 리 먼 길을 만나러 왔으므로 만남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나, 경계하고 신중해야함은 당연하게 보인다. 정기모임은 아니나(혹은 기약한 모임은 아니나) 제후 간의 요청에 의해 모임이 성사된 경우 동사 ‘遇’를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28)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83 참조. 『公羊傳』에는 ‘遇’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모임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鄫나라 제후는 무엇 때문에 季姬가 시키는 대로 입조하였는가? [이 표현은] 노나라의 측의 말이다. 노나라에 입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청혼하게 한 것이다.(鄫子曷爲使乎季姬來朝, 內辭也. 非使來朝, 使來請已也.)”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137 참조.

29) 『莊公4年』에도 동일한 형식의 經文이 보인다. 즉 “夏, 齊侯陳侯鄭伯遇于垂.”

30)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23 참조.

31)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38 참조.

32)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65 참조.



앞의 두 형식의 經文은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를 ‘遇’자로 표현하지만, 또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弗遇’라고 표현한 곳도 있다. 이 사례는 『桓公10年』에 “가을에 桓公이 衛侯를 도구<sup>33)</sup> 지역에서 회동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秋, 公會衛侯于桃丘, 弗遇)”는 經文이 보이는데, 『穀梁傳』에서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뜻을 서로 얻지 못했음을 말한다. 弗은 노나라 입장의 말이다.(弗遇者, 志不相得也, 弗, 內辭也.)”<sup>34)</sup>라고 설명하고, 『公羊傳』에서는 “회동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임을] 기약했다는(혹은 정기모임이다는) 말이다.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환공이 衛侯의 만남의 요청을 받지 못했음을 말한다.(會者何, 期辭也. 其言不遇何, 公不見要也.)”<sup>35)</sup>한다. 이 모임을 누가 주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范甯의 『穀梁傳』 주석과 何休의 『公羊傳』 주석이 다르다. 范甯은 “회동을 주장한 자는 衛나라인데, 魯는 桃丘에 이르렀으나, 衛는 오지 않았으므로, 弗遇라고 기록함으로써 치욕의 마음을 상쇄한 것이다.(倡會者衛, 魯至桃丘而衛不來, 故書弗遇, 以殺恥.)”<sup>36)</sup>라고 말하며, 위나라가 魯와 모임을 주동하고서 오지 않아, 魯公이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으로 弗遇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마음을 상쇄했다고 말하나; 何休는 “당시 사실은 환공이 衛侯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위후가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환공이 예가 아닌 것으로써 움직이므로, 거절을 당하여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회동하려 했으나 서로 만나지 못했다고 함으로써 피휘한 것이다. 弗遇라고 말한 것은 먼저 환공이 만남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時實桓公欲要見衛侯, 衛侯不肯見. 公以非禮動, 見拒有恥, 故諱使若會而不相遇. 言弗遇者, 起公要之也.)”<sup>37)</sup>라고 말하며, 먼저 魯桓公이 만나려고 하였으나, 衛侯는 환공이 형 隱公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므로 만나려 하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弗遇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弗遇’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제후 간에 회동을 위해 한쪽에서 만남을 요구하여 성사되지 않은 경우, 弗遇라고 표현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周易』과 『春秋』에 쓰인 ‘遇’의 용례를 중심으로 그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周易』에서는 인간이 당면한 각종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는 ‘遇’자의 다양한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禮儀문화 속에서 왕과 제후 간의 만남에서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의 정기모임에 만나지 못한 경우, 한해가 다 가기 전인 겨울에 정기적인 모임처럼 만나는 모임의 명칭을 ‘遇’라 하고, 뿐만 아니라 제후와 제후 간의 모임에서도 정기모임이 아닌데(혹은 기약하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는 모임을 ‘遇’라 칭한다. 이런 비정기적인 모임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명사 ‘遇’는 그런 모임을 지칭하는 동사로 사용된 예가 『春秋』에 다양하게 보이고, 『穀梁傳』과 『公羊傳』은 각자의 입장에서 모임의 성격에 대해 때로는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예의문화 속에서 비정기모임 즉, 우연한 모임의 성격을 지칭하는 동사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예의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자와 제후, 혹은 제후와 제후의 비정기적 혹은 우연한 만남을 표현할 때 ‘遇’자를 사

33) 앞에서 인용한 『禮記·曲禮下』에 “국경 사이의 땅에서 만나는 것을 會라 한다(相見於卻地曰會)”고 하였으니, 모임 장소인 桃丘는 衛나라 땅이라 하지만, 국경에 인접한 곳일 것이다.

34)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37 참조.

35)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61 참조.

36)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p.37 참조.

37)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p.61 참조.

용하게 됨으로써, 인간관계의 우연한 측면을 표현하는 보편적 개념을 함의하는 단어로 그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관심 주제인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항상 내포된 우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遇’자가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4. 遇不遇의 神話的 形象

지금까지 어원과 문헌에 쓰인 용례를 중심으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遇’자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다’의 개념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遇’자의 이런 개념이 君臣 간의 ‘遇不遇’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게 된 시기는 대체로 『荀子』前後시기로 보인다.<sup>38)</sup> 『荀子』보다 조금 후의 문헌인 『呂氏春秋·報更』편에도 君臣 간의 遇와 不遇를 나타내는 적절한 예가 보인다. 즉 “張儀는 魏氏의 서자로 장차 서쪽으로 秦나라에 가서 유세하려고 하면서 東周를 지나게 되었다. 식객 중에 昭文君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자가 있었는데, 말하길 ‘魏氏 사람 張儀는 재능 있는 선비로 장차 서쪽으로 秦나라로 유세하러 가니 원컨대 군주께서 그를 예를 갖추어 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昭文君은 張儀를 만나자 그에게 말하길, 손님께서 秦나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과인의 나라는 작아 손님을 머물게 하기는 부족하지만, 유세하러 가신다고 반드시 (군주와 뜻이) 遇할 수 있겠습니까? 손님께서 혹시라도 不遇하게 되면, 과인을 위해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나라는 비록 작지만, 손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張儀, 魏氏餘子也, 將西遊於秦, 過東周. 客有語之於昭文君者曰, 魏氏人張儀, 材士也, 將西遊於秦, 願君之禮貌之也. 昭文君見而謂之曰, 聞客之秦. 寡人之國小, 不足以留客. 雖游然豈必遇哉? 客或不遇, 請爲寡人而一歸也, 國雖小, 請與客共之.)”<sup>39)</sup>라고 하였다. 昭文君이 張儀에게 한 말 중, 張儀의 유세 내용과 秦나라 군주의 뜻과 맞으면 遇이고 맞지 않으면 不遇라고, 군신 간에 만남이 성사될 지의 여부를 遇와 不遇로 표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呂氏春秋·遇合』편에서도 ‘遇不遇’의 문제를 논한다. 그러나 이 글의 논지는 주로 통치자의 입장에서 士人과의 遇合 문제만을 논한다.<sup>40)</sup> 이후 ‘遇不遇’의 문제는 『孔子家語·在厄』, 『韓詩外傳』, 『說苑·雜言』, 『論衡·逢遇』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된다.<sup>41)</sup>

38) 『荀子·宥坐』편에 “무릇 遇不遇는 때의 문제이다(夫遇不遇者, 時也.)”라고 하고, 『荀子』와 같은 시기이거나 조금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여겨지는 『窮達以時』에도 “遇不遇는 하늘의 문제다(遇不遇, 天也)”라고 하는 언급이 보인다. 이 두 문헌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문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中國人文科學』, 第46輯, 2010.12, pp.239-243 참조.

39) 高誘 注, 『呂氏春秋』, 『諸子集成』 第9冊, 河北人民出版社, 1986.04, p.169 참조.

40) 시작 부분에 “무릇 만나는 것은 시기에 적합해야 하니, 시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적합한 때를 기다린 후에 행해진다.(凡遇, 合也. 時不合, 必待合而後行.)”고 하며, 통치자가 “무릇 마땅히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만나면 반드시 버려지고, 마땅히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면, 이는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유이고, 세상이 쇠미해지는 원인이다. 천하의 백성들이 괴롭고 수고스러운 것은 이로 부터 생겨난다.(夫不宜遇而遇者則必廢, 宜遇而不遇者, 此國之所以亂, 世之所以衰也. 天下之民, 其苦愁勞務從此生.)”고 주장한다. 高誘 注, 『呂氏春秋』, 『諸子集成』 第9冊, pp.153-155 참조.

41) 이들 문헌의 遇不遇 개념에 대한 논의는 졸문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pp.

遇不遇 문제에 대한 이들 문헌의 논의를 일별해 보면, 신화적 인물들의 전형화 된 언급들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중국 문명의 초기단계에 출현하는 신화적 인물 중, 堯、舜、禹、湯、關龍逢、伊尹、傅說、比干、呂望、盜跖 등은 遇와 不遇의 경우를 설명하는 선례로 이들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그 중에는 신화 인물과 역사 인물이 혼재되어 있지만,<sup>42)</sup> 중국인들은 이들을 모두 고대사의 실존적 인물로 매우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인물 중 요와 순의 신화적 구조 속에 드러난 遇不遇 틀을 분석함으로써, 후대 문헌 기록에서 이들에 대한 유관 기록의 전형화 된 표현이 왜 자주 등장하는가의 유래를 살펴보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문헌에 보이는 遇不遇에 대한 논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먼저 ‘만나고 만나지 못함을 때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인생에서 현명하고 불초함이 재능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것이 운명에 달려 있으며, 하고 하지 않음은 사람의 일인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關龍逢+桀, 比干+紂, 伍員+夫差처럼 賢臣이 昏君(亂世)를 만나 不遇할 수도 있고; 舜+堯, 傅說+武丁, 呂望+文王, 管夷吾+齊桓公, 百里奚+晉穆公, 孫叔敖+楚莊王처럼 賢臣이 賢君을 만나 遇할 수도 있다. 또는 같은 군주를 섬기는데 伍員은 죽고(賢臣+昏君=不遇) 帛喜는 존귀하게 된 것은(昏臣+昏君=遇) 군주를 섬기는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고, 伊尹과 箕子는 마음가짐은 같았으나 섬기는 군주가 달라 伊尹은 成湯의 재상이 되고(賢臣+賢君=遇) 箕子는 商紂 노예가 된 경우도 있으며(賢臣+昏君=不遇); 孔子·孟軻가 끝내 不遇한 것은 군주가 재능이 부족하고 지혜가 천박하기 때문이고(大才臣+淺才君=不遇); 虞舜이 唐堯를 만나 천자의 자리를 계승하였으나(大才臣+大才君=遇), 許由는 唐堯를 만나 은거한 경우도 있고(大才臣+大才君=不遇); 혹은 堯는 흐리고 舜은 혼탁하며, 武王은 잔학하고 太公은 포악하여 만났다고도 하고(昏君+昏臣=遇); 舜이 천하를 다스릴 때 北人無擇은 은거하였고(賢君+賢臣=不遇), 禹가 천하를 다스릴 때 伯成子高는 관직을 버리고 농사를 지은 경우도 있다(賢君+賢臣=不遇).<sup>43)</sup> 이 외에도 다른 다양한 遇不遇의 경우를 분석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전형적인 틀을 구성하는 경우와 신화적 인물의 형상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위의 분석에서 보듯이, 群臣 관계에서 遇하게 되고 不遇하게 되는 원인은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의 수인 8가지 중 4가지 형식만 언급된다.

賢臣+昏君=不遇(大才臣+淺才君=不遇)

賢臣+賢君=遇(大才臣+大才君=遇)

244-248 참조.

42) 사라 알란은 중국 고대 문헌의 기록에는 신화 인물의 역사화뿐만 아니라 역사 인물의 신화화 현상도 동시에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마스페로는 중국신화의 결핍을 신화적 인물들이 역사화 되면서 그들의 초자연적 형상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과정, 즉 신화가 곧 역사라는 신화역사화(euhemerization)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문헌은 역사화 된 초자연적 인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서의 신화화된 인물의 내용도 포함한다.”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선양과 세습』, 예문서원, 2009, p.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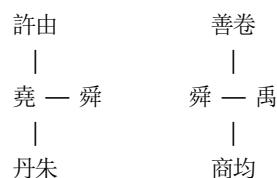
43)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遇不遇의 사례는 『荀子·宥坐』, 『窮達以時』, 『韓詩外傳』, 『論衡·逢遇』편의 유관 내용 중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분석은 졸문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참조.

賢臣+賢君=不遇(大才臣+大才君=不遇)

昏臣+昏君=遇

여기에 빠진 4가지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賢臣+昏君=遇의 경우는 결국에 不遇하게 되고, 昏臣+昏君=不遇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당연하며, 昏臣+賢君=不遇(혹은 遇)의 경우는 遇하더라도 결국은 不遇하게 됨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된다.

戰國시기에서 漢代까지의 문헌에 보이는 君臣 간의 遇不遇 관계를 논한 경우의 수는, 중국 문명 초기의 신화인물과 관련한 왕조교체의 전설 속에 이미 드러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라 알란(Sarah Allan)의 연구 성과를 인용할 것이다. 그녀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중국인들은 확실히 현대인과는 다르게 조상들이 살았던 신화시기가 있었다고 여겼다. 이 신화 시기와 관련된 많은 문화적인 면의 영웅과 초자연적 업적 및 인물들이 있다. 여기서 다루는 전설세트의 초기 인물로는 왕조 이전 즉 唐虞 시기의 영웅이었던 堯와 舜, 禹를 들 수 있다. 왕조 변천의 구조적 모델로 이 인물들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 바뀌는 통치권의 변화구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진행순서에 따라 한 왕조의 시기는 다른 왕조를 이었지만,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화시기는 현재와 연결되어 있고, 현대인들의 행위는 정통성을 갖는다.”<sup>44)</sup>라고 말한다. 사라 알란은 신화시기의 인물인 堯·舜·禹 사이에 보인 왕위 전환과정의 구조가 일치하며, 고대중국인들은 후대 夏·商·周 왕조교체의 모델로 이들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신화와 관련된 단편적 문헌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각 전설의 심층구조를 드러낸, 다음과 같은 전설세트를 구성하였다.



사라 알란의 이 도표는 권력전환의 관계를 밝히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요에서 순으로 순에서 우로의 구조가 완전히 같음을 볼 수 있다.<sup>45)</sup> 우리는 이 도표에서 군신 간의 관계에 관해 앞에서 분석한 경우의 수를 모두 읽어낼 수 있다. 堯에서 舜의 권력전환 구조는 유가사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성군인 堯가 현명한 舜에게 권력을 禪讓한 관계로 보기 때문에, 賢臣+賢君=遇(大才臣+大才君=遇)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韓非子』와 『古本竹書紀年』과 같은 법가사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舜이 堯를 전복하거나 꺾었다고 기록하므로<sup>46)</sup>, 昏

44)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선양과 세습』, pp.72-73 참조.

45)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선양과 세습』, p.303 참조.

46) 법가들의 이런 관점에 대한 논의는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선양과 세습』, pp.84-85, pp.280-286 참조. 저자는 “『한비자』에서는 순이 백성들을 자기 주위에 모았다는 것으로 전복행위를 암시하고, 신하들에게 ‘순이 요를 꺾었다(舜偏堯)’고 말하는 설객들을 경고하는 반면, 『고본죽서기년』에서

臣+賢君=不遇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또는 앞에서 언급한 『論衡·逢遇』에서 “堯는 흐리고 舜은 혼탁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昏臣+昏君=遇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

堯와 許由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도가계열의 문헌에 보이는데, 堯가 許由에게 천하를 양도했을 때, 그는 舜과 달리 왕위를 거절한다. 許由와 舜은 모두 성현이지만, 舜은 왕위를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적으로 탐욕의 오명을 남겼으나, 許由는 거절함으로써 의로움(義)을 중시하고 이득(利)을 경시하는 인물의 역할을 한다. 이 두 사람의 군신 관계는 賢臣+賢君=不遇(大才臣+大才君=不遇)의 관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유의 입장에서 보면 堯는 권력의 탐욕에 빠져있으므로, 賢臣+昏君=不遇(大才臣+淺才君=不遇)의 경우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堯와 丹朱의 관계는 父子 관계로 세습계승권을 갖고 있으나, 丹朱의 不德으로 인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昏臣+賢君=不遇의 경우로 볼 수 있다. 舜에서 禹로의 권력전환 구조도 堯에서 舜으로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君臣 간의 관계도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神話시기 인물인 堯·舜·禹가 서로 왕위를 전해주는 과정에 드러난 권력전환의 구조 속에는 그것을 기록하였던 후대인들의 왕권교체에 대한 여망과 이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생각했던 왕권교체에는 禪讓과 世襲이라는 두 가지 틀이 항상 중재기능을 하면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왕이 계승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식과 덕 있는 신하를 항상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변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을, 위의 신화의 구조는 잘 반영하고 있다. 본 논문의 주제인 君臣 간의 遇不遇의 시각에서 위의 신화 구조를 보았을 때도, 비록 유가·도가·법가의 문헌에 따라 관점이 바뀌기는 하지만, 그 신화의 특 속에는 遇와 不遇의 다양한 관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5. 結語

본 논문은 먼저 ‘우연한 만남’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글자로서 ‘遇’자가 그 초기 형태에서 어떻게 그러한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글자의 어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 후 이런 의미의 ‘遇’자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선진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遇’자가 사용되었음을 논증하였다. 먼저 『周易』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遇’자는 동사로서 각종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의 상황에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春秋』에 보이는 용례에서는, 중국의 禮儀문화 배경에서 천자와 제후 간의 四季節의 정기모임 중에 겨울의 모임을 지칭하는 명사로 ‘遇’자가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제후 간의 비정기적인 혹은 사전에 기약하지 않은 모임을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초창기의 ‘遇’자가 갖고 있는 단순한 ‘우연한 만남’의 의미가, 예의문화의 배경 속에서 천자와 제후, 혹은 제후와 제후 간의 비정기적 혹은 우연한 만남을 표현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됨으로써 그 의미의 외연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 외연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인간사의 우연한 만남을 나타내는 보편적 개념을 함의하는 단어로 ‘遇’자를 사용하

는 순이 요를 감금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 라고 주장한다.

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 내포된 우연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遇’자가 사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遇不遇의 관점에서, 神話시기 인물인 堯·舜·禹의 왕권교체에 관한 후기 문헌에 표현된 신화구조를 분석한 결과, 그 구조의 틀 속에 遇와 不遇의 다양한 관계가 함축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비록 그 신화구조 속에 禪讓과 世襲이라는 王權移讓의 두 가지 틀이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君臣 간의 遇不遇 관계가 유가·도가·법가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신화 인물들의 왕권교체 구조 속에 표현된 각종 遇不遇의 경우는 후기 각종 문헌의 관련 기록에서 자세한 예시와 함께 상세히 논의된다.<sup>47)</sup>

‘遇不遇’의 개념에 관한 이런 철학적 논의의 토양 하에 漢代에 이르면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不遇’ 주제의 작품<sup>48)</sup>이 창작되기 시작한다. 그 후 ‘遇不遇’ 주제의 문학작품은 ‘士不遇’의 전형적인 君臣 간의 경우뿐만 아니라, ‘尋隱者不遇’와 같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우발우의 감정을 문학적으로 승화한 작품으로 그 창작 영역이 확대된다. ‘遇不遇’ 개념에 대해, 그 개념의 형성과 철학적 논의 그리고 문학작품으로의 승화 과정을 살펴볼 때, 중국문학사에서 초창기에 시를 통해 작가의 정치사상적 뜻을 표현한다는 “詩言志”<sup>49)</sup>라는 개념이 먼저 생겨나고, 후에 문학 본연의 기능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詩緣情”<sup>50)</sup> 개념이 생겨난 현상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47) 졸문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pp.233-250 참조.

48) 그 예로 동중서의 「士不遇賦」와 사마천의 「悲士不遇賦」가 있다.

49) “詩言志”는 『尙書·堯典』에 나오는 기록으로 중국문학이론의 비조격인 綱領이다. 여기에서 ‘志’의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陳伯海, 『中國詩學之現代觀』(上海古籍出版社, 2006, 25-32쪽 참조)의 「釋詩言志」장에 자세히 논하고 있다. 陳씨는 “시가의 ‘志’는 원고시기의 巫術이나 종교 활동과 연결되는 인간의 집단적 祝咒意向으로부터 예악문명의 제도가 확립된 후 정치적 교화나 인류의 규범과 관련이 있는 志向과 懷抱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화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스런 일이며, 또한 ‘志’가 예악문명시기로 접어들 후의 정형화된 의미다”라고 주장한다.

50) “詩緣情”은 西晉시기 陸機(261-303)의 「文賦」에 보이는 내용이다. 육기는 「文賦」에서 詩·賦·碑·誄·銘·箴·頌·論·奏·說 등의 문체의 풍격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는 감정을 따라 표현하면서도 아름답다. (詩緣情而綺靡)”고 정의한다. 蕭統 選編, 李善 等註, 『六臣註文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03, p. 293쪽 참조.

## 【참고문헌】

- 任繼愈 主編, 『中國佛教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爾雅』, 『十三經注疏』 8, 臺北, 藍燈文化事業公司  
[清]段玉裁, 『說文解字注』, 臺北, 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 1983.09.  
于省吾 主編, 『甲骨文字詁林』 第3冊, 北京, 中華書局, 1996.05.  
容 庚 編著,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07.  
黃壽祺·張善文,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89.  
『周禮』, 『十三經注疏』 3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禮記』, 『十三經注疏』 5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穀梁傳』, 『十三經注疏』 7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公羊傳』, 『十三經注疏』 7冊, 臺中, 藍燈文化事業公司  
高誘 注, 『呂氏春秋』, 『諸子集成』 第9冊, 河北人民出版社, 1986.04.  
사라 알란 지음, 오만중 옮김, 『선양과 세습』, 예문서원, 2009.  
陳伯海, 『中國詩學之現代觀』, 上海古籍出版社, 2006.  
蕭 統 選編, 李 善 等註, 『六臣註文選』,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03.  
吳萬鍾, 「遇不遇 개념의 역사적 논의 과정에 대한 소고」, 『中國人文科學』, 第46輯, 2010.12.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遇不遇, 禮儀文化, 周易, 春秋, 諸侯		
Key Words	영문	Encounter-Nonencounter, Etiquette Culture, <i>Zhouyi</i> , <i>Chunqiu</i> , Feudal Lords		
<div>The Origination of the ‘Encounter-Nonencounter’ and Its Patterns across the Yao-Shun-Yu</div> <div>Ou, Man-Jong · Jang, Su-Yeon</div> <p>This paper has foremost attempted to show how the word ‘遇’ has the meaning ‘accidental encounter’ by analyzing the letter’s original shape, and then by proving this word was used with that meaning in early Chinese texts. In the text <i>Zhouyi</i>, we can actually see the word ‘遇’ used in the situation of an accidental encounter as verb. Whereas in the text <i>Chunqiu</i>, we can see the word used as a noun designating a winter meeting between emperors and feudal lords, but also as a verb designating occasional meetings in early Chinese etiquette culture. Through these analyses, we may say the original meaning of the word ‘遇’s ‘accidental encounter’ was expanded by several meanings expressing meetings between emperors and feudal lords in early Chinese etiquette culture etc., and it gradually evolved to represent the general concept of ‘accidental encounter’ in human affairs. This paper has also analyzed the pattern of encounter-nonencounter across the Yao-Shun-Yu mythical dynasties.</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오만종 / 吳萬鍾 / Ou, Man-Jong		장수연 / 張水蓮 / Jang, Su-Yeon
	소 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oumj6011@jnu.ac.kr		641-0035@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5월 21일		심 사 일 2019년 05월 25일
	수 정 일	201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06월 18일